

금호건설 (002990)

기업이슈 브리프 | 건설/건자재

Buy (maintain)

목표주가	10,000 원
현재주가	6,820 원
시가총액	2,520 억원
KOSPI (11/15)	2,480.33 pt

[NDR 후기] 마진을 개선을 확인하자

Analyst 김세련 _ 02 3779 8634 _ sally.kim@ebestsec.co.kr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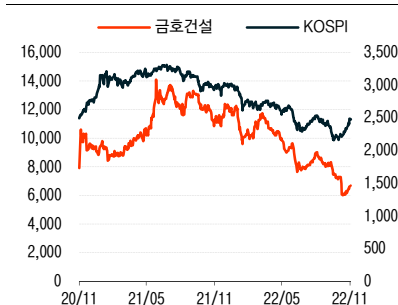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7.6 억원
외국인 지분율	7.1%
절대수익률 (YTD)	-41.2%
상대수익률 (YTD)	-24.5%
배당수익률(22E)	11.7%

재무데이터

(십억원)	2020	2021	2022E	2023E
매출액	1,830	2,065	2,035	2,202
영업이익	81	112	71	97
순이익	26	148	38	72
ROE (%)	7.2	28.6	6.0	11.1
PER (x)	12.5	2.8	6.6	3.5
PBR (x)	0.9	0.6	0.4	0.4

자료: 금호건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K-IFRS 연결 기준

Stock Price



3분기 실적 재점검

—연초 분양 목표 8천세대에서 6,700세대로 목표치 감소했으나 현 시점 연내 분양 가이드는 3,700세대로 추가 하향 조정됨. 인허가 지연과 부동산 시장 경색 및 건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재조정 등에 따라 3천세대 수준이 2023년으로 이연됨. 2023년 분양 목표치는 6,700세대이나 금리 레벨을 고려할 때 달성 여부 확인할 필요

—건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진행예정원가를 조정하면서 실적 컨센서스 대비 하회했으나, 건자재 가격 상승분에 따른 공사비 에스컬레이션 적용 및 분양가 조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택 원가를 84~85% 수준 회귀 전망

—신규수주 2.8조원 가이드선, 현재 2.4조원 기록하며 연간 가이드선 달성에 무리 없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의 공급대책 중 150만호가 신도시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3기 신도시 공급 관련 발주가 점진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LH사업은 설계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 공모 사업 역시 3기 신도시에서도 많이 발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설계 공모형 수주는 마진이 높은 편이라 수주 성공시 마진 추가 개선 가능할 것

계열사 리스크 및 PF 리스크 제한적

—금호고속의 차입금 성공적 롤오버와 더불어 보유 자산 매각 가능성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임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금호그룹이 이미 경영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만큼 아시아나항공 이벤트가 더 이상 주가 등락의 재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함

—금호건설의 PF보증잔액은 5,900억원으로 이 중 3,900억원은 워크아웃 거치면서 대주단과 협약을 통해 손실시 출자전환을 하기로 했으며, 2,000억원은 개발사업 관련 PF이나 차입금 만기 2025년으로 PF 리스크는 제한적.

—GTX B 발주 관련 컨소시엄 구성 단계. 수주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컨소시엄 구성할 것. 토목 수주 감소로 매출 감소 나타나는 중인데, 그 외에 4개 공항사업 (가덕도, 새만금, 대구경북 신공항, 제주 제2공항)도 현 정부에서 가속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 수혜 기대

—지난해 DPS 800원, 올해 배당 기초 역시 최소 전년 이상이 목표

